

지역전략산업 연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

경종수^{1*}, 이보형¹
¹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A Study of Business Support Policy for Small-Medium Enterprises in Regional Strategic Industry

Jong-soo, Kyung^{1*} and Bohyung, Lee¹
¹Business Planning Agency, Chung-nam Technopark

요약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의 기업지원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사결정(지역사업의 사업포트폴리오전략, 효율적 사업비 배분, 중점추진과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4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참여기업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창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will find approach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upport polic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SMEs) in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Especially, based on the customized needs of SMEs in strategic industries, we intend to find directions of the business support policy. we can use the decisions criteria(for example, business strategy, business portfolio, effective budget allocation, core business plans, etc.) by research resul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e surveyed from 243 SMEs in regional strategic industry. we found the differences of industry characteristics, strategy and industry-specific by growth stages. Thus, this result implies the necessity of creating a customizing policy for SMEs. We found implications about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conclusion, regional industrial policy must reflect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f regional industries and the demand of SMEs.

Key Words : Regional Strategic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olicy, Industry Policy

1. 서론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산업측면에서는 전후방 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10]. 조민경, 김승철[11]의 연구는 경제환경과 맞물려 중소기업의 처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응한 정부 지원정책의 부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구조 내에서의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정책의

*교신저자 : 경종수(jskyung@ctp.or.kr)

접수일 10년 03월 31일

수정일 (1차 10년 05월 03일, 2차 10년 05월 23일)

게재확정일 10년 06월 18일

효율성 중심의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윤보, 노화봉[9]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향상 및 강화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현봉[8]은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벤처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역량 및 인력지원시책, 글로벌 경쟁력강화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주도의 지역산업진흥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의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을 점검하고, 지역산업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 및 특정 산업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지역산업정책 내에서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개선방안, 충남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기업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기업지원의 정책방향 도출과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정책의 수요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은 전략산업간 혁신역량 비교분석, 전략산업간 지원정책 기업수요 비교, 전략산업간 기업지원 유형별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하여 차별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2.1 지역산업정책의 발전과정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중심의 국가산업정책이 추진되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산업정책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국가중심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산업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 및 지역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정책은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지역산업정책의 주요사업의 추진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대별 지역산업정책의 발전과정

연대	주요내용
60~70년대	-국가중심정책 외에 종합적인 지역정책은 미흡한 시기 -경제성장의 도입기, 산업시설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시기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기술정책은 부진
8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산업단지 및 대덕연구단지 개발 -생산기반구축, 집적이익을 통한 투자효율성 극대화에 치중
90년대	-지역 간 균형개발과 성장을 동시 추구, 수도권 성장억제, 지방첨단과학연구단지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산형정책 및 지방과학진흥정책을 통하여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산학연 공동사업 등이 추진
2000년대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최근 10여 년간 추진되어온 지역산업정책은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전례 없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2001년)을 시작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1999년, 2002년), 테크노파크조성사업(1998년, 2000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2005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법의 개정 및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역전략산업과 신성장 선도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2.2 지역산업진흥정책 현황

지역산업진흥정책은 99년부터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이다.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의한 사업은 4개 지역(대구, 부산, 광주, 경남) 1단계('99~'03)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9개 지역(울산, 경북,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 1단계('02~'07)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08년부터는 4+9개 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17,18].

2010년부터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0). 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IS), 지방기업이전보조금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0년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자율계획 및 지역 내 다양한 추진주체들의 공동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추진주체별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업의 종합추진전략,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역사업의 통합을 추구하였다[15].

2.3 중소기업지원의 정책방향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중심의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사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산업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역산업정책에서도 중소기업지원은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기업의 성장단계 및 지원분야별로 상당부분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제도의 활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방향은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10]. 즉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의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

2.4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8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영향요인으로 기업가 특성, 기업전략, 조직구조와 특성, 자원특성, 산업구조 및 환경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90년대부터는 외부환경 및 자원, 지식경영, 지식자산관리, 전략경영 등을 다루고 있다[12]. 최근에는 전략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4], 주로 경쟁전략과 기술적 능력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개발전략, 제품개발전략, 기술영업전략이 강조되고 있다[6].

한편,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다루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의 원천으로 기술과 경영부문의 혁신역량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자신을 차별화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7].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competency)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역량의 차원은 비교우위의 자원 및 전략 등 다양한 원천으로 구분된다. 혁신대상에 따라 제품 혁신형, 공정 혁신형, 마케팅 혁신형으로 구분하며, 포괄적으로는 기술 혁신형, 경영 혁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김영배[1]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은 '혁신적 중소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어 개념적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민철구 등[3]은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기술개발, 생산, 영업 및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경영활동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자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가지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OECD Oslo Manual에 따른 기술혁신조사(2002년, 2005년, 2008년)를 신제품혁신, 기존제품개선, 공정혁신으로 크게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OECD[20,21]는 기업혁신활동의 국제비교를 위해 혁신활동의 조사방법론에 관한 Oslo Manual을 1992년 작성하였으며, 1997년과 2005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다. 2008년 기술혁신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혁신활동,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081개의 기업이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인 혁신율은 32.8%이며, 제품혁신율은 24.7%, 공정혁신율은 18.7%, 조직혁신율은 16%, 마케팅혁신율은 11.2%로 나타나고 있다[16].

중소기업성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기술, 지식, 경쟁전략 등이 강조되며[22], 특히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와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활동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19].

한편 기술혁신과 더불어 경영부문의 지원적 및 보완적 역할이 중요하다. 신진교 등[5]은 기업의 R&D와 기술혁신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문화와 같은 조직상황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Sun & Wing[24]은 혁신지향 문화가 중소기업의 R&D를 성공적인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Souitaris[23]는 기술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Teece[25]는 중소기업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리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R&D역량만으로 기술혁신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5 충남의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충청남도는 전략산업의 선정하기 위해 우선 주력기간 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

업집적지분석(생산액, 매출액), 입지우위성분석(LQ), 기술혁신역량분석(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육성 의지(산업진흥계획) 등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6]. 충남의 전략산업은 전자정보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첨단문화산업이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1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32.4%에 달한다. 산업별 종사자수는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1.2%, 10.1%), 기능성 식품, 의약, 동물바이오 등이 포함되는 농축산바이오산업은 8.0%에 해당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충남의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 평균증가에 있어서도 첨단문화를 제외하고는 평균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 충남의 전략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충남의 전략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연평균성장률 (1993~2006)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충남 전체	127,547	100.0	604,762	100.0	1.58	2.58
전정보	1,705	1.34	67,762	11.21	3.33	5.21
자동차부품	2,184	1.71	60,764	10.05	5.93	6.34
첨단문화	5,856	4.59	18,807	3.11	3.35	2.09
농축산바이오	6,682	5.24	48,459	8.01	1.51	3.65
소계	16,427	12.88	195,792	32.38		

자료원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7

충남의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은 강한 지방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8년 2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충남의 사업비전은 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산업 등이 연계되는 융합기술 클러스터 구축으로 신성장산업 중심지 건설이다[17,18].

전략산업별로 보면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 제조장비)부문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분야는 의장 및 편의의 시스템 부품분야로 특화하여 친환경, 안전성을 고려한 고감성 자동차부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분야는 디지털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핵심거점인 영상미디어센터의 혁신인프라를 보완·정비하여 기술지원시스템 및 컨텐츠 제

작지원을 강화한다.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분야는 농축산바이오자원 핵심요소 시범생산기반 구축 및 제조가공·자원화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3. 기업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3.1 조사방법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를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지역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략산업별 50~60개 기업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응답 협조요청 공문과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응답은 이메일 또는 fax로 전송받았다. 1차적으로 280개 기업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응답기업은 250개 기업으로 회수율은 88.66%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7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243개의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어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전략산업별로 살펴보면, 매출액통계 결과 매출액 구간을 살펴보면 전자정보산업은 500억 이상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은 10억 이상~100억 미만, 500억 이상에서, 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공통(기업지원)산업은 10억 미전에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시종업원 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구간을 전략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자정보/자동차부품산업은 100명이상 500명 미만, 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공통(기업지원)산업은 10명 미만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본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전자정보/자동차부품산업과 그 외의 전략산업에서 매출액과 상시종업원 수의 표본 특성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

전산업	매출액(억원)				종업원 수(명)				
	10억 미만	10~100	100~500	500 이상	10명 미만	10~50	50~100	100~500	500 이상
전정보	9	15	9	18	7	12	8	14	9
자동차부품	2	19	12	19	0	17	6	22	5
첨단문화	22	12	1	-	21	13	4	-	-
농축산바이오	12	10	5	3	25	18	4	2	-
공산	22	14	5	2	23	16	1	4	-
비중	32%	33%	15%	20%	33%	33%	10%	18%	6%

3.2 전략산업간 혁신역량 비교분석

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연구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표를 참고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16]. 기술개발은 신제품 및 기술개발전략,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보유, 기술개발 자금, 기술개발 시설, 지적재산권 보유 등, 마케팅부문은 마케팅 기획 및 마케팅 전략, 국내의 시장확대, 브랜드 개발, 마케팅전문인력 등, 경영관리부문은 중장기 전략 수립, 경영혁신전략 수립, 교육훈련 투자 등, 관계관리부문은 주요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 지역 대학과의 기술개발 연계, 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연계, 지역내 지원기관과의 연계, 전반적인 외부관계관리 능력 등, 기업문화는 위험수용,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성원간 상호신뢰 수준 등으로 측정하였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요목적이 지역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의 세부항목별 혁신역량 중요도와 보유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갭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기업 전체 결과를 보면 혁신역량 중요도와 보유수준의 갭은 기술개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보유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 혁신역량의 중요도-보유수준

구 분	기술 개발	마케팅	경영 관리	관계 관리	기업 문화	mean
역 중요도	4.46	4.20	4.17	4.03	4.12	4.20
역 보유수준	2.71	2.65	2.82	2.93	3.03	2.83
GAP	1.75	1.55	1.35	1.10	1.09	1.37
T-test	24.18***	24.95***	23.17***	18.42***	18.46***	29.47***

주)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전략산업간 기업들의 혁신역량의 중요도는 기술개발에 대체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첨단문화산업의 경우에는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역량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분야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자정보산업과 자동차 산업, 공통신업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중요도-보유수준 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술개발 부문의 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문화산업과 공통신업에서는 마케팅 부문에서의 갭이 크게 나타났다.

[표 5] 전략산업별 기업혁신역량 비교

구 분	기술 개발	마케팅	경영 관리	관계 관리	기업 문화	종합	
전정 정보	중요도	4.50	4.09	4.19	3.98	4.19	4.19
	보유수준	2.92	2.76	3.12	3.12	3.23	3.03
	GAP	1.58	1.33	1.07	0.86	0.96	1.16
	t-value	16.64***	9.89***	10.75***	7.34***	9.74***	13.65***
자동차부	중요도	4.66	3.97	4.24	4.01	4.04	4.18
	보유수준	2.85	2.63	2.85	3.03	2.93	2.86
	GAP	1.81	1.34	1.39	0.98	1.10	1.33
	t-value	16.00***	10.10***	12.29***	8.33***	9.15***	13.49***
첨단 문화	중요도	4.35	4.40	4.15	4.05	4.12	4.22
	보유수준	2.64	2.66	2.67	2.92	3.04	2.79
	GAP	1.72	1.74	1.49	1.13	1.08	1.43
	t-value	13.48***	12.08***	8.70***	7.68***	7.56***	5.84***
농축산 바이오	중요도	4.42	4.33	4.31	4.33	4.13	4.31
	보유수준	2.40	2.66	2.80	2.72	2.92	2.70
	GAP	2.02	1.67	1.51	1.61	1.21	1.61
	t-value	16.07***	11.50***	11.92***	11.88***	7.91***	14.27***
공산 통합	중요도	4.36	4.22	3.97	3.78	4.10	4.09
	보유수준	2.76	2.51	2.68	2.83	3.03	2.76
	GAP	1.60	1.71	1.29	0.95	1.07	1.33
	t-value	12.66***	12.32***	6.52***	6.93***	7.71***	13.51***

주) ***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3 전략산업간 지원정책 기업수요 비교

전략산업별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기업수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산업별 우선순위 분석과 중요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과 세제감면 확대에 대한 요구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정보산업 및 첨단 문화산업에서는 기술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수준이 2위로 나타났다. 1위에서 3위까지 순위를 비교했을 때 순위변동만 있을 뿐 대부분 전략산업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술경영 정보제공,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세제감면 확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중소기업정책 우선순위 비교분석

구 분	종합	전정 정보	자동차부	첨단 문화	농축산 바이오	공산 통합
행정절차 간소화	3	3	3	2	2	5
토지이용 규제 완화	8	8	8	7	7	8
행정규제 완화	5	4	5	5	4	6
갈등조정 기능 강화	9	9	10	8	8	9
기술경영 정보제공	4	2	1	2	5	3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1	5	4	1	1	1

SOC확충 투자확대	7	7	7	6	6	7
노사관계 지원	10	10	9	9	9	9
세제감면 확대	2	1	2	3	3	4
기업종합지원센터 확충	6	6	6	4	5	2

둘째, 전략산업별 기업지원 정책수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략산업별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7] 전략산업별 기업지원 정책수요 분산분석

지원 정책	전략산업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p-value	scheffe 분석
인프라 구축	전자정보	3.891	0.554	0.079	0.366	0.832	-
	자동차	3.839	0.557	0.074			
	첨단문화	3.861	0.512	0.085			
	바이오	3.875	0.608	0.081			
기술 개발 지원	전자정보	3.755	0.733	0.109	1.248	0.291	-
	자동차	4.255	0.487	0.070			
	첨단문화	4.093	0.613	0.081			
	바이오	4.200	0.652	0.110			
경영 지원	자동차	3.991	0.727	0.097	2.939	0.021	전자정보<첨단문화*
	바이오	3.761	0.735	0.098			
	전자정보	3.700	0.667	0.095			
	공통산업	3.785	0.704	0.104			
마케팅 지원	자동차	3.688	0.613	0.087	7.347	0.000	자동차<바이오* 자동차<공통산업*
	첨단문화	3.495	0.626	0.083			
	바이오	3.854	0.793	0.132			
	공통산업	4.102	0.839	0.112			
자금 지원	공통산업	4.116	0.694	0.103	1.823	0.125	-
	전자정보	4.197	0.619	0.088			
	자동차	3.970	0.752	0.100			
	첨단문화	4.314	0.585	0.097			
정보 교류	바이오	4.041	0.776	0.103	1.485	0.208	-
	첨단문화	4.222	0.762	0.113			
	자동차	3.891	0.737	0.105			
	공통산업	3.726	0.550	0.073			
	바이오	3.777	0.699	0.116			
	첨단문화	3.672	0.587	0.078			
	자동차	3.672	0.587	0.078			
	공통산업	3.575	0.744	0.112			

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요 비교분석 결과 전략산업별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우선,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보교류지원분야에서는 전략산업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영지원분야에서는 전자정보산업과 첨단문화산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첨단문화산업의 기업들이 경영지원분야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케팅지원에 있어서는 자동차산업과 바이오 및 공통산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동차산업보다는 바이오

오산업 및 공통산업에서 마케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파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지원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업의 포트폴리오, 효율적 사업비 배분, 중점추진과제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참여기업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전략산업별 기업성장단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창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 제안되는 중소기업지원의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산업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표본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전자정보/자동차 부품산업과 그 외의 전략산업에서 매출액과 상시종업원 수의 표본 특성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지원 항목 중 대부분 기술개발과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질적 성과중심의 기업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항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측정한 결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장확보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지도에 대한 요구순위가 다른 요구사항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과중심의 지원정책 발굴 및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기업의 혁신역량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현재 혁신역량 보유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보유수준의 갭(gap)을 측정한 결과 기술개발부문에서 가장 큰 괴리를 보였다. 특히 기술개발 중에서도 기술개발 자금지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혁신역량 보유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간 기술개발 애로요인 비교분석에서도 전자정보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개발자금의 부족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넷째, 산학연 연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략산업간 기업지원 요구사항 우선순위 비교결과 대부분의 전략산업에서 정보교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업협의회, 산학연네트워킹, 웹진/포럼/세미나 등과 같은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학연 연계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교류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영배, 「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특성·기술습득과 경영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2] 김영배, 하성욱,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조사”, 기술혁신연구, 제8권 제1호, pp. 125-153, 2000.

[3] 민철구, 김왕동, 김종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공급가치사슬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5-07, 2005.

[4] 배종태, 차민석,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1998-2004)”, 벤처경영연구, 제8권, 제3호, pp. 83-110, 2005.

[5] 신진교, 황수정, “중소기업 R&D와 기술혁신: 기능부서간 협력 및 지역산업문화의 조절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pp. 2523-2548, 2008.

[6] 안연식, 김현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균형성과 관점과 주관적 성과 관점에서의 성과 요인 분석”,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3, No. 1. pp. 31-46, 2001.

[7] 양창호, “경영혁신의 성공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5호, pp. 63-84, 1999.

[8] 양현봉,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2호, pp. 181-206, 2003.

[9] 이윤보, 노화봉, “한국,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3호, pp. 329-379, 2006.

[10] 장영순, 김주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

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 IE Interfaces, Vol. 20. No. 3, pp. 418-426, 2007.

[11] 조민경, 김승철,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분석 : 한국·독일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Vol. 30. No. 2, pp. 103-123, 2008.

[12] 최명신, 윤진효, 박경수, “산업간 비교를 통한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성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4권 제1호, pp. 119-146, 2006.

[13]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전략산업발전로드맵」, 2007.

[14] 충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을 위한 전략산업 수요조사분석 보고서」, 2009.

[15] 충남테크노파크, 「2010년 충청남도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2010.

[16]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2008),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부문」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지역혁신사업안내」, 2009.

[1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008년 신규지원 안내」, 2008.

[19] Conceicao, P., D. Hamill, and P. Pinheiro,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at 3M: A Case Stud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9(1), pp. 25-38, 2002.

[20] OECD(1999a), Mana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 Paris.

[21] OECD(1999b),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Paris.

[22] Scott, M.C., Re Inspiring the Corporation, Wiley, Chichester, 2000.

[23] Souitaris, V., "Technology Trajectories as Moderators of Firm-level Determinants of Innovation", Research Policy, 31(6), pp. 877-898, 2002.

[24] Sun, H. & W.C. Wing,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in the Hong Kong Toy Industry", Technovation, 25(3), pp. 293-303, 2005.

[25] Teece, D.J., "Competition, cooperation and innovation: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regimes of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8(1), pp. 1-25, 1992.

경 종 수(Jong-soo, Kyung)

[정회원]



- 2004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5년 10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선임연구원
- 2008년 4월 ~ 현재 :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지역산업정책, 지식서비스, B2B네트워크, 기술마케팅

이 보 형(Bo-Hyung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무관리학 (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무관리학 (경영학박사과정)
- 2007년 4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화전략실 연구원
- 2009년 5월 ~ 현재 :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연구원

<관심분야>

성과관리, 정보화전략, 산업정책, 가치평가